
	<b>보 도 반 박</b>				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<b>배포</b>	'21.8.23.(월)	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<b>담 당 자</b>	김 경 문 사무관 (02-2100-2824) 김 나 혜 사무관 (02-2100-2836)		
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김 종 훈(02-2100-2990)		유 원 규 사무관 (02-2100-2992)		
	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양 진 호(02-7550-7550)		문 재 희 팀장 (02-3145-7552)		

## **제 목 : 카드론에 대한 차주단위 DSR 조기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.**

### **1. 기사 내용**

- ☐ 이투데이는 “금융당국, 업계에 33조 카드론 ‘DSR 조기 적용’ 의견 타진” 제하의 기사에서
- “가계부채 잡기에 나선 금융당국이 내년 7월로 예정됐던 카드론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규제 적용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# **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**

- ☐ 현재 금융당국은 카드론의 차주단위 DSR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.